

LG전선 구미공장

안전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LG전선 구미공장
안전관리자 김 병 화

안전.보건.환경을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추구하는 LG전선 구미공장은 1977년 단일 공장으로 동양 최대의 통신선 제조공장을 건립 한 이후 꾸준한 발전을 통하여 지금은 각종 정보, 에너지 전송기술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구미공장의 주요생산품은 인터넷 보편화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광섬유(FIBER), 광통신선, 데이터 케이블 등과 함께 에너지와 정보를 전송하는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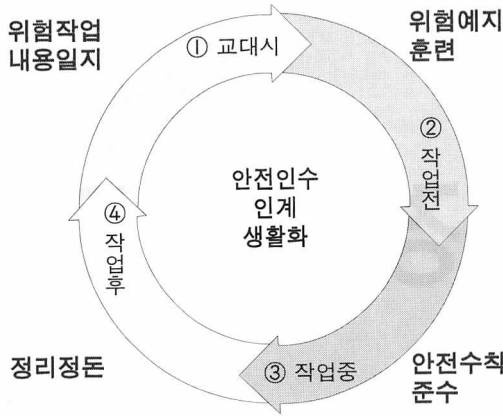
정보 에너지 전송기술로 인간과 함께하는 기업

(Information, Energy and Human being)을 21세기 장래상으로 정한 LG전선의 경영목표는 「자연과의 조화, 주변 공동체와 공존을 재인식해 안전과 환경 보호에 노력하는 선도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과 환경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의 의지를 경영의 목표로 환경안전보건(ESH) 경영방침을 정하여 대내외에 선포하여 96년부터 환경안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UL로부터 ISO14000 인증 획득, 2000년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 보급하는 KOSHA 2000인정을 34호 인정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선진국 수준의 환경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LG전선 구미공장의 안전보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현장 기본 소단위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전원참여의 자율적인 무재해 활동이다.

98년 이공장 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영식 부사장은 철저한 자율안전을 바탕으로 안전은 기본의 충실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으로 생산과 더불어 안전도 인수인계 제도를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 함으로써 자칫 빠뜨리기 쉬운 잠재위험을 철저히 관리, 제거하고 있다.



방향에 대하여 성과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지원, 각종 안전보건 환경 관련 위험관리기준 확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평가, 사전환경안전 평가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예방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둘째, 노와 경이 따로 없는 활발한 안전보건 활동이다.

과거 상호 불신과 쟁의로 얼룩진 노·경관계가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합심을 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중심의 안전도우미를 선발하여 각부문의 무재해 소집단 활동이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매월 노경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개선 함으로써 개선효과도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노경 화합 분위기는 상호신뢰의 불씨가 되어 99년에는 전국 노사화합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셋째, 선진형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정착으로 안전보건추진 결과가 경영성파로 평가되어 임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중요 현안으로 개선 발전되고 있다.

환경안전팀에서는 각 부문별로 매월1회 환경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매월말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전사 임원회의에 주요사항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안전·환경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경쟁력이라 판단한 경영진이 안전 문제점과 개선

LG전선 구미공장의 이와 같은 안전보건 활동의 결과 매년 0.8%의 재해율이 99년부터 0.3%이하로 감소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자 전선제조 공정에서는 불가능하게 인식 되어온 무재해 달성을 업계 최초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부터 생산 현장에서의 최고 경쟁력은 품질보다 안전이라고 LG전선 전임직원은 입을 모은다. 